

AIDS 추방운동 활발

英国서組織

기금11억 3천만원으로 런던에設立

교육훈련단체 ACET 結成

AIDS(후천면역결핍증)의 전파를 막고 말기증상의 환자를 돕기 위한 새로운 자선기관이, 기독교 단체인 World in Need(공공한 세계)에서 제공한 100만파운드(11억3천만원)의 기금으로 런던에 설립되었다.

AIDS치료, 교육및 훈련(ACET)이라고 부르는 이 단체는, 온 영국에 전문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로 가정치료망을 조직하고, 교육을 통하여, 더는 감염되지 않게 막으며, 여러 곳에 말기 환자수용소를—그 첫번째 것이 금년말 서부런던에 개설된다.—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CET은 또 모든 교회조직에 권고하여 AIDS환자의 후원 그룹을 만들게 할 참이다. 그리고 그 장기 계획에는 치료 서비스를 해외에도 확장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World in Need는 잠비아

保健要員도 2백여명 確保

와 우간다에서 이미 여러가지 시험계획을 실시 중이다.

ACET는 6명의 전문가와 2백여명의 훈련된 보건요원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이숫자를 5백명으로 늘릴작정이다.

「AIDS환자는 집에서 죽고 싶어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고 ACET회장 페트릭 디슨 박사는 말한다. 「그리고 그런 환자를 돌보려면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한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의 자원봉사자를 불러서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봉사자들은 장보기, 음식만들기, 청소하기 같은 실질적인 일도 도와주게 될 것이다」

딕슨 박사는 케임브리지를 졸업하고 런던의 여러 병원에서 암의 말기환자를 돌보는 일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AIDS환자에게까지 그의 임상작업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는 또 「AIDS에 대한 진실」의 저자이기도 하다.

肥滿은 음식섭취가 아니라 新陳代謝서 問題點있어

英国루커스博士, 비만증治療對策보고

영국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두 가지 발견은 해독은 비만증(肥滿症)문제와 살빼기 문제에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비만은 일반적으로 과식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잉글랜드 동부 케임브리지에 있는 던 영양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그 문제의 열쇠는 음식의 섭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진대사(新陳代謝)에 있다는 최초의 분명한 증거를 발견한 것으로 믿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미 뚱뚱해진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바람에 연구의 결과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는 사실로 해서 지장을 받아 왔었다. 사람이 하루에 에너지를 얼마나 섭취하고 얼마나 소비하는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 별로 없을만 하지 못했다.

그래서 던 연구소의 일련 루커스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뚱뚱한 어머니한테서 태어나 장차 뚱뚱해질 가능성이 매우 큰 아기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들은 그 아기들에게 아무 해가 없는 안정된 동위원소(同位元素), 중수소, 중산소를 놓

축시킨 물을 먹인 후 2, 3 주 동안 그것이 어떻게 없어지는가 조사했다. 소변 같은 체액(體液)을 측정함으로써 아기가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했고 칼로리를 얼마나 소비했는지 측정할 수 있었다.

루커스 박사는 논평한다. 「우리는 1년동안 비만증 어머니의 아기들을 조사했다. 실제로 그들 가운데 50%는 체중이 과중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체중이 과중해지지 않은 아기들 뿐 아니라 여윈 어머니한테서 태어나 장래에 과중해질 우려가 없는 아기들과 이들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비만이 라는 점에서 장차 뚱뚱해질 아기와 그렇지 않은 아기의 차이가 전혀 없는 생후 3개월 되던 때에, 장차 뚱뚱해질 운명에 있는 아기는 에너지의 흡수가 같은데도 벌써 에너지 소비가 줄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루커스 박사가 설명한다. 「이것은 뚱뚱해진 아기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아기가 연소시키는 칼로리의 양이 줄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것은 이 분야에서 새로운 기법을 이용한 최초의 매우 분명한 실험의 하나인지도 모른다. 이것은 약간에 있어서는 과식에 있어서가 아니라 신진대사의 문제로 말미암아 뚱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 발견의 한가지 가능한 해석은,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비만해지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흥미진진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비만의 원인이 무엇이든, 머지 않아 불필요한 지방을 태워 없애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스코틀랜드에서 실시된 시험으로 BRL 2683 OA라는 코르데명이 붙은 한 실험약이 칼로

리를 조절한 다이어트보다 50%나 더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새로운 비정형성(非定型性) 베타 아드레노셉터 작용제(作用劑)라는 이 약은, 대부분이 여자인 16명의 비만한 자원자에게 매일 투여되었고, 한편 비슷한 수의 사람들에게는 이 약의 가짜가 투여되었다.

시험이 계속된 18주 동안 이 두 그룹은 저지방의 섬유질이 많은 식사를 했다. 그 결과 진짜 약이 투여된 사람들은 가짜 약이 투여된 사람들보다 체중이 근 6.3kg이나 더 떨어진 것이다.

과거에는 비만증이 있는 사람에게 입맛을 억제하는 약이 주어졌으나, 새 치료법은 신진대사를 작게하는 것이다.

라면 소금량 조정必要 대부분 소금함량 높아

하루에 소금을 10그램 이상 먹으면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라면 1개에 들어있는 소금량이 최하 4.76그램에서 최고 10.99그램에 달해 라면의 소금함량이 시급히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소비자연맹이 최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개회사 19개 라면제품을 조사한 결과 라면의 면과 스프속에 함유된 소금과 조미료 형태로 들어있는 소금의 잔맛 성분인 나트륨을 합한량이 최고 10.99그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값이싼 제품일수록 소금이외의 양념을 적게 쓰기 때문에 염도가 높

消費者聯, 19개 제품 調査

은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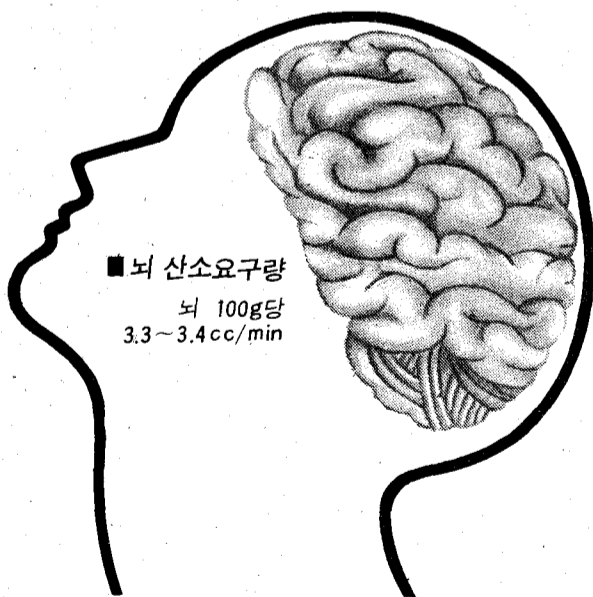
특히 용기면의 경우 면의 용량이 봉지면의 3분의 2정도인데 스프의 양은 똑같아 다른 종류의 라면보다 짠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식염 섭취를 낮추기 위해 미국은 1일적정섭취량을 3~8그램, 일본은 10그램, 우리나라는 10그램이하를 제한목표량으로 정하고 있으나 하루에 라면 2개를 먹으면 소금의 하루 필요량인 10.5그램을 훨씬 넘게 하고 거기에 김치 등의 반찬을 먹으면 지나치게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게 되고 고혈압, 신장질환, 간장질환 등 여러가지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어른을 공격하여 효도를 실천하자.

뇌졸중 중풍 만신불수

- 만성 두통
- 지각장애
- 현기증
- 노화증후군
- 연탄가스중독 후유증 (언어장애·수전증·기억력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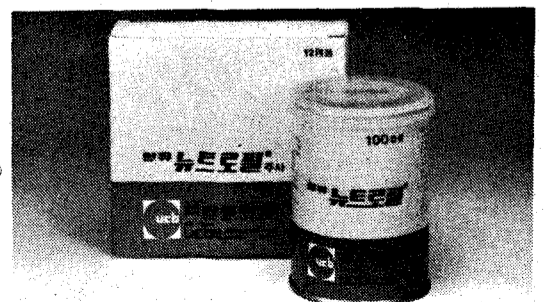


뇌에 맑은 산소를!
BELGIUM UCB 뇌기능 대사 촉진제
뉴트로필

R Nootropil 2.4g/day p.o for 6weeks

5大 藥理作用

- 1. 물질대사 촉진작용**
산소 및 포도당의 이용율을 증가시켜 뇌신경세포의 물질대사 촉진을 시켜 줍니다. (Rouzeffaut B. et al. FRANCE)
- 2. 신경전달 촉진작용**
유발 전위에 작용하여 반구정보를 전달합니다. (HERRSCHARFT H. et al. GERMANY)
- 3. 혈소판의 파인 억제작용**
혈소판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유착을 방지하여 제증상을 개선하여 줍니다. (Barnhart et al. U.S.A)
- 4. 적혈구 변형 유동력 증가작용**
적혈구의 변형성을 증가시켜 말초혈행을 원활하게 하여 줍니다. (Skondia V. et al. BELGIUM)
- 5. 저산소시 뇌기능 보호작용**
말초혈행을 정상화시켜 다발성 기질증상을 개선시켜 줍니다. (C. Giurgena and Coli. BELGIUM)



■ 포장 ■ 주사 : 1g 12앰플·정제 : 800mg 100정
캡슐 : 400mg 100캡슐 / 15,000원